

10월 2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2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지표배신에 9800선 이탈..다우 1.2%↓	뉴욕증시가 28일(현지시간) 경제지표 실망감으로 크게 밀렸음. 주택판매 지표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이고, 3분기 GDP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투자심리가 급랭했음. 여기에다 미 달러화 반등으로 상품주가 급락세를 나타냈음. 다우 지수는 119.48포인트(1.21%) 떨어진 9762.69를, 나스닥 지수는 56.48포인트(2.67%) 급락한 2059.61을, S&P 500 지수는 20.78포인트(1.95%) 하락한 1042.63을 각각 기록. 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음. 아르셀로미탈, 캐논, SAP 등 해외 기업들의 실적악재와 더불어 달러화 반등으로 상품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 특히 개장후 발표된 9월 신규주택판매가 기대와 달리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자, 매물이 더욱 늘어났음. 한편 경제지표 부진속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돼 미 국채 가격과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세를 나타냈음. 반면 국제유가는 재고증가와 달러화 반등 영향으로 2% 이상 떨어지며 배럴당 77달러선까지 밀렸음.
9월 신규주택판매 뜻밖의 감소	경제지표는 엇갈렸음.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에 부합했던 반면 신규주택판매는 기대치를 크게 밀들었음.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신규주택판매는 전월대비 3.6% 감소, 연율기준으로 40만2000채를 기록.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6개월만에 처음. 당초에는 전월비 증가세를 보이며 연율로 44만채를 기록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현재 미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8000달러의 세제지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달말 이전에 주택매매를 종결시켜야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주택 구입을 포기한 사람이 늘었을 것이란 분석. 여기에다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미 가계의 불안감도 주택거래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美 3분기 GDP 발표 하루 앞두고 전망치 줄 하향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측기관들이 잇따라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도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됐음.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연율 3.0%에서 2.7%로 하향 조정. 이날 발표된 9월 내구재주문의 세부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영향을 미쳤음. 골드만삭스는 "내구재주문의 헤드라인 숫자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면서도 "그러나 방위산업 이외의 자본재가 특히 약하게 나왔다"고 지적했음. 모간스탠리도 내구재주문 발표 이후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8%로 낮췄음. 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2.5%에서 2.3%로 하향 수정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급락..77달러 선 후퇴	국제유가가 28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배럴당 77달러선까지 후퇴했음.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밖으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달러화 반등세와 경제지표 부진이 영향을 미쳤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09달러(2.6%) 하락한 77.46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우선 지난 주 미국의 주간 휘발유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점이 수급측면에서 부담이 됐음.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23일 마감기준) 원유 재고와 휘발유 재고가 각각 80만 배럴과 160만배럴씩 증가했다고 밝혔음. 이중 원유 재고는 시장의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 하지만 휘발유 재고는 에너지 정보기업 플랫폼의 조사로는 10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었음. 또 미 달러화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점도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의 수요를 위축시켰음. 여기에다 9월 신규주택판매가 예상과 달리 전월비 감소세를 보이고, 경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글로벌 증시가 동반 조정을 보이자 원유수요 회복세 약화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음.
내년 韓 성장률 4.4% 전망-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음. 올해 경제성장률은 -0.2%로 전망했음. 지난 7월 내놔던 전망치(-1.8%)보다 1.6%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금융동향 세미나'를 통해 "201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설비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해 8.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수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3.1%와 2.1%로 전망.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 예상폭의 절반 수준인 143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나지만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로 올해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올려 잡았음. 달러-원 환율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연평균 112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음.
9월 가계대출 금리 큰 폭 상승..CD금리 급등 영향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른 CD금리 상승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지난 9월 가계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음.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9월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이 한달간 상승폭으로는 1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0.33%포인트를 기록. 국은행이 28일 발표한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연 5.82%로 전월보다 0.21%포인트 상승. 이 가운데 기업대출 금리는 5.78%로 전월보다 0.18%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금리는 5.96%로 0.33%포인트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는 뜻임. 신규대출의 금리가 오른 것은 CD금리(9월에 0.16%p 상승)와 은행채 금리(9월에 0.40%p 상승)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조달 비용이 늘어났고 이를 가산금리 형식으로 신규대출 고객들에게 전가했기 때문.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